



# "재활용가능자원 84% 버린다"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는 지난 4~5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12개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발생원별로 종량제봉투 내 쓰레기 성상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전체 쓰레기 성상을 '우선 재활용 가능자원(이하 우선 재활용자원)'과 '잠재 재활용 가능자원(이하 잠재 재활용자원)', '유해폐기물'과 '기타'로 분류하면 우선 재활용자원 60%, 잠재 재활용자원 24%로 총 재활용 가능자원은 약 84%였다.

우선 재활용자원 중에서 분리수거만 하면 당장 재활용이 가능한 5종 분리수거 대상품목만 해도 약 34%로 나타나 체계적인 분리수거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세부적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한 우선 재활용자원의 내부 항목별 비율을 보면 음식물이 우선재활용 가능자원 내에서 44%를 차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이 플라스틱류(25%), 종이류(15%) 순이다. 잠재 재활용자원 내부에서는 종이류(기타 폐지-종이부스러기, 화장지 등)가 6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섬유 피혁류(22%), 플라스틱류(10%) 순이다. 각 배출원별로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가정부문에 비해 비가정부문과 기타부문이 종량제봉투 내 우선 재활용자원 혼입율이 높았다(가정 부문 53%, 비가정부문 66%, 기타부문 68%). 세부발생원별 쓰레기 종량제봉투 내 혼입율을 보면 음식점과 시장상가 지역의 음식물 혼입율이 매우 높고, 공공행정기관의 우선 재활용 종이류 혼입율이 높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기 평택 공공행정기관의 경우 매우 높은 우선재활용 종이류 혼입율을 보여 전체 평균을 높인 원인으로 지적된다. 또한 우선 재활용자원 중 유리 및 캔류의 경우 공공행정기관, 숙박시설, 다중이용장소에서 혼입율이 비교적 높고 특히 공공행정기관의 경우 종량제봉투의 54%가 종이류로 나타나 공공기관의 종이류 분리배출 정착이 시급한 문제임을 보여준다. 종이류의 경우 업무 빌딩지역(47%)과 교육시설(31%) 또한 높은 혼입율을 나타내었다.

가정부문에서 주목되는 점은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 순으로 종량제봉투 내 음식물의 혼입율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음식물 공동수거함을 설치하는 등 음식물 재활용을 위한 기본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단독주택의 경우 음식물의 체계적인 수거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기타부문은 버스터미널, 전철역, 공원 및 가로 등 유동인구량이 많은 다중이용장소로서, 전체적으로 볼 때 타 부문에서는 혼입량이 적은 유리병류, 캔 및 고철류, 플라스틱 포장재류의 혼입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즉 분리배출할 시 매우 높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우선재활용 가능자원-캔류, 음료수 병, 신문지 등 종이류-이 분리되지 못하고 함께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종량제봉투 내 우선 재활용자원의 혼입율을 비교해 보면 충북 청주시(75%)와 강원 횡성군(71%)이 비교적 높고, 대구시(42%)와 부산시(50%)가 낮다. 이중 종량제봉투 속 음식물 혼입율을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충북 청주(49%), 충남 천안(40%), 대전광역시(37%) 등 주로 충청권 지역의 음식물 혼입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대구광역시도 음식물이 9%로 가장 낮았고 경남 김해시 14%, 서울 송파구 15% 등도 낮은 음식물 혼입율을 나타내었다. 12개 지역의 전체 쓰레기 성상별 비율은 음식물이 26%로 가장 많고, 종이류가 25%, 플라스틱류(포장재 및 기타 플라스틱)가 17%, 기타류가 15%를 차지했다.

조사는 기존의 조사가 주로 소각 및 매립시설에 반입된 쓰레기 조사였던 것과 달리 생활쓰레기 발생원을 10가지로 구분하여 종량제봉투 내 성상별 무게(kg)를 재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총 샘플량은 4,648kg이다. 이번 조사는 쓰시협이 올해 한 해 동안 12개 지역환경단체들과 함께 진행하는 '지역사회 재활용가능자원 흐름분석'의 1차 쓰레기 배출실태 조사로서, 이를 토대로 한국사회 폐기물 문제를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이행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